본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제35회 총회(임시) 개회사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반대와 우리업계 의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터"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협회 제35회 임시총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홍평우 명예회장님, 정승일 명예회장님, 이찬재 조합이사장님 그리고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5천여 설비건설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건설산업은 GDP의 17%를 담당하는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해외건설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가 낙찰공사가 300억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크게 떨어진 낙찰율은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우리 업계에 직격탄이 되어, 가뜩이나 심한 저가하도급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건산법을 개정하여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 전문간의 겸업제한 폐지를 전제로 한 건산법 개정에 대하여 수차례 건교부와 협의를 하였고 지금도 우리업계의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해서 우리업계의 어려움과 분리발주, 시참자 문제 등 여러가지

본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제35회 총회(임시) 개회사

의견을 직접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하위법령 개정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협회는 겸업제한 폐지를 반대하며 현행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정부에서는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지금은 개정안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산법 개정문제는 건교부에 이어 이제는 국회를 상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우리업계의 의견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원가 반영과 미반영시 벌칙조항이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발생시 PQ감점제도 폐지조항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심각한 내용으로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밖에 우리협회는 지난 16일부터 건설공사실적확인서등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하는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신속 · 정확한 증명서 발급과 함께 회원사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증명발급시스템을 계기로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업무편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는 금년상반기 협회에서 추진한 사업보고에 이어 2005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과 충언을 부탁드리며, 또한 업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총회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총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06. 9. 21.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본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제35회 총회(임시) 개최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 결사 반대 결의문 채택"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원가 반영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9월 21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총회(임시)를 개최하고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종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저가 낙찰공사가 300억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크게 떨어진 낙찰률은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우리업계에 직격탄이 되어 가뜩이나 심한 저가하도급이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건산법을 개정하여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회

▶ 박종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 반대와 설비건설업계 의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종학 회장은 "우리협회는 겸업제한 폐지를 반대하며 현행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정부에서는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은 개정안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협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원가 반영과 미반영시 벌칙조항이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산재발생시 PQ가점제도 폐지조항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한 다음 "이 두가지 사항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심각한 내용이 개선된 것으로 앞으로 많은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종학 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16일부터 건설공사실적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하는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신속 · 정확한 증명서 발급과 함께 회원사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를 결사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

이날 설비건설업계는 전국 시 · 도회장들이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중지를 모은 결과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이 대표로 긴급발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총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5,500 회원사는 2006. 7. 24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일반 ·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에 대하여 △우리 기계설비건설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일반 ·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를 결사 반대한다 △일반 ·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는 30년 전으로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겸업제한 폐지시에는 설비건설업계의 원도

▶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가 기계설비협의회에서 제정, 선포한 '기계설비인 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본 회

▶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이 전국 시 · 도회장들을 대표하여 긴급 발의를 제안,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 결사 반대'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건교부 및 관련기관 실무자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은 건교부 김영한 서기관)

급 참여를 보장하는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제도(분리발주)의 건산법 반영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공헌한 건설교통부 김영한 서기관 등 6명에 감사패 수여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의 원 · 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방안, 건산법 개정을 위한 선진화포럼 등으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건설교통부 김영한 서기관 △협회의 행정업무 지도 및 설비기술의 각종 기준마련에 기여한 건설교통부 김공훈 주무관 △건설하도급실태조사, 저가하도급방지 등 각종 하도급관련 규정을 건설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 예방에 기여한 대한주택공사 정태기 부장 △토지공사의 건축 및 토목 설비공사 분리발주, 설비기술기준 제정에 기여한 한국토지공사 정 량개발사업팀장 △가스설비시공관련제도와 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의 개선으로 가스설비공사의 기술향상과 업계발전에 기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호천 기술지도처장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합리적인 건설비용 산정에 기여한 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 건설코스트연구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성실시공으로 설비업계 발전에 공헌한 (주)승진이엔씨 정승국 대표 외 17명의 회원에게 공로패 수여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또 설비공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업계발전과 설비건설업계 위상제고에 공헌한 (주)승진이엔씨 정승국 대표이사 외 17명의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본 회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설비공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업계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18명의 회원사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감사패 수상자 명단

성명	기관명	직책
김영한	건설교통부	서기관
김공훈	건설교통부	주무관
정태기	대한주택공사	부장
정 량	한국토지공사	개발사업팀장
이호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지도처장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센터장

△ 공로패 수상자 명단

성명	상 호	직위	지역
정승국	(주)승진이앤씨	대표	서울
심재봉	인방산업(주)	대표	서울
신영란	(주)두형엔지니어링	대표	서울
박경흠	(주)세건엔지니어링	대표	부산
김종삼	(주)명신이엔지	대표	대구
유훈동	정수건설(주)	대표	인천
조명현	(주)태원산업	대표	광주 · 전남
정규찬	신우기업(주)	대표	대전 · 충남
이상훈	(주)제이콘	대표	울산 · 경남
김종호	(주)진 용	대표	경기
민평기	성마기업(주)	대표	경기
윤종훈	(주)그린엔지니어링	대표	강원
배창동	거명엔지니어링(주)	대표	충북
김남표	(주)협성기공	대표	전북
손흥석	(주)제일산업	대표	경북
심현모	(주)두보설비공영	대표	기스시공협의회
한상우	웅남기공(주)	대표	플랜트협의회
인병억	(주)성창기전	대표	자동제어협의회

본 회

제107차 이사회 및 시 · 도회장 회의 개최

▶ 지난 9월7일 개최된 제107차 이사회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9월 5일과 7일 시 · 도회장 회의 및 제107차 이사회를 각각 개최했다.

시 · 도회장 및 이사회에는 2006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국민연금 · 건강보험 원가반영 의무화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PQ신인도 심사시 건설재해율 반영제도 개선 추진 △임금지급조서제출 자료 정보공유 유보 추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설비자재가격 현실화 추진 △제17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업무 추진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반영 추진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도시가스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방법 개선 건의 △도시가스 시설공사관련 도시사스사업자의 부당행위방지 재건의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 공시 △2006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추진 △건설공사실적 미달업체 명단 통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해제 8.15 특별조치 시행 △인터넷증명서발급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재편성 △2006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및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정부포상 △수재의연금 기탁 등의 업무내용을 보고했다.

본 회

▶ 지난 9월5일 개최된 시 · 도회장 회의

제107차 이사회에서는 부의사항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제35회 총회(임시) 소집, △유공자 포상 결정의 건 등이 상정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박종학 회장은 시 · 도회장 회의 및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반 ·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를 전제로 한 건산업 개정에 대하여 수차례 건교부와 협의하였고 지금도 우리업계의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협회는 겸업제한 폐지를 반대하며 현행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정부에서는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종학 회장은 "그럴 경우 우리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건교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산법 개정 문제는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2차전이 또 전개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도회장 및 이사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학 회장은 또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원가반영과 미반영시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고, 산재발생시 PQ감점제도 폐지조항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앞으로 많은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회

제47차 윤리위원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태건)는 지난 9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47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보고사항으로 △2006년 건설의 날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정부포상 수상 등을 보고했으며, 부의사항으로 협회 정관 제32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 9월 21일 개최될 예정인 제35차 총회(임시)에서 협회 및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18명의 유공회원사에 대한 추천을 심의하였다.

윤리위원회의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포상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설비건설업계 유공자 포상 추천 기준

①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 대표자

② 설비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200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기계설비공사업 10억원, 가스시공업(1종) 5억원 이상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이다.

△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이나 업무수행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 공사의 성실시공과 하도급질서 확립에 모범이 되어 업계의 위상을 높인 자. 단, 상습적인 저가투찰, 입찰질서 문란 등으로 설비건설업계의 도덕성에 흠이 있는 업체의 대표자는 추천을 제외

△ 기업경영 또는 신공법 연구개발 및 시공실적이 우수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된 자

△ 기타 협회 및 업계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자

③ 단, 공사실적이 추천기준에 미달하여도 설비업계 및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 · 도회장은 추천할 수 있다.

□ 포상제외 대상

① 최근 5년 이내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을 받은 자

② 최근 5년 이내 본회 협회장 공로상을 받은 자

③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을 받은 업체의 대표자

④ 협회의 제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본 회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시연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난 9월 15일 박종학 회장과 최동호 상임부회장, 우광헌 이사, 정해돈 이사, 김경회 상임이사, 서광문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은근수 서울특별시회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증명발급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9월 16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를 통해 정부권한 위탁업무인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외 10여종의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박종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협회가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그동안 회원사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 정확한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서비스를 한 차원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문서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해 발급받은 증명서에 2차원 바코드와 '원본' 복사방지 마크가 삽입돼 있어 증명서의 신뢰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계기로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 보다 신속 · 정확하고 경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본 회

▶ 박종학 회장이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시연해 보고 있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인터넷증명서 발급 절차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서식 작성 (발급기준값 입력) → 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신원확인 처리 → 발급기준값 입력 → 미리보기 요청

↓

미리보기 → 발급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조회 후, 출력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회 제30회 총회(임시) 개최

▶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증명발급 시행으로 회원사 편익증진과 CAD교육 및 설비적산 교육을 통한 회원사 임직원 직무향상, 분쟁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위촉 등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회원사 임직원 직무향상교육, 법률자문 위촉 등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 위해 노력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9월 28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총회(임시)를 개최하고 2005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본회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석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입법예고된 일반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폐지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 업계로서는 실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형국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협회는 본회 박종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설비관련 학계, 설계업체, 기술인 등 범 설비업계가 이를 저지코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초빙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설비업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대 회장은 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업무

서울특별시회

▶ 백종윤 윤창기공(주) 대표가 기계설비협의회에서 제정, 선포한 '기계설비인 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효율을 증진키 위해 인터넷 증명서 발급을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하여 회원사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폴리텍 I 대학과 연계한 기존 CAD교육과 함께 설비적산 교육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향상 및 인력수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 클레임 등 분쟁해소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률자문으로 위촉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강석대 회장은 이어서 "실적신고 등 정부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회원사 권익옹호와 협회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분리발주 확대 업무를 위해 발주기관과의 유대강화 등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9월 16일부터 가동된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은 회원사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서울시회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에 의해 시스템 구축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회원사의 경영편익을 위해 변호사 · 노무사 등 자문체계운영과 대학과의 위탁교육을 통한 회원사 임직원 직무향상교육, 산 · 학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장학사업은 서울시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서울시회의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발주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분리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품질점검은 품질향상을 위한 우리 업계의 노력과 공신력을 크게 드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분리발주 및 시공현장 기술지도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정통부 김영복 기계주사 등 3명에게 감사패 수여

▶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분리발주 및 시공현장 기술지도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정보통신부 및 관련기관 실무자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총회에서 분리발주 및 시공현장 기술지도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김영복 기계주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이남기 차장 △ SH공사 고객지원부 황준연 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특별시회

□ 기성실적이 우수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주)세보엠이씨 김종서 대표 외 20명의 회원사 대표에게 기성실적패 수여

▶ 강석대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기성실적이 우수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21개 회원사 대표에게 기성실적패를 수여했다.

서울특별시회는 또 기성실적이 우수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주)세보엠이씨 김종서 대표를 비롯한 21명의 회원사 대표에게 기성실적패를 수여했다.

△ 감사패 수상자 명단

성명	기관명	직위
김영복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기계주사
이남기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차장
황준연	SH공사 고객지원본부	팀장

△ 기성실적패

회사명	성명	직위	기성실적(원)
(주)세보엠이씨	김종서	대표이사	1,400억
(주)성도이엔지	서인수	〃	1000억
지에스네오텍	최성진	〃	800억
우양기건(주)	강석대	〃	700억
(주)우진아이엔에스	홍평우	〃	500억
대아공무(주)	김 철	〃	500억
(주)우원	임종태	〃	500억
(주)한산기연	이원구	〃	400억
(주)한은이엔씨	이제환 이재성	〃	400억
(주)김앤드이	김종성	〃	400억
(주)세방테크	강부인	〃	400억
세일이엔에스(주)	정승일	〃	300억
세일기계설비(주)	김현수	〃	300억
(주)광장설비	황갑주	〃	300억
윤창기공(주)	백종윤	〃	300억
삼진공작(주)	황선복	〃	300억
금강설비기공(주)	김상래	〃	300억
유창공영(주)	김성태	〃	300억
진호실업(주)	박웅기	〃	300억
(주)성아건업	정해돈	〃	300억
성운기공(주)	박남용	〃	300억

서울특별시회

제5차 회원사 임·직원 직무교육 실시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5차 회원사 임 · 직원 직무교육'을 한국폴리텍 I 대학에서 실시했다.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CAD 초 · 중급과정'과 '건축설비적산 초 · 중급과정'으로 회원사 임직원 59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서울특별시회 안구근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교육에 참여한 여러분의 향학열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가일층 앞당길 것"이라며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만큼 교육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앞서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폴리텍 I 대학의 이병수 교수는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회가 지난 7월 3일부터 2주간에 걸쳐 '회원사 임직원 직무교육 활성화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설비적산, 기업세무기본, 전산세무회계, 엑셀 초 · 중 · 고급과정의 신설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교육에 건축설비적산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2주간에 걸쳐 야간에 집중실시하고 있는 '건축설비CAD교육'은 4차에 걸쳐 총 2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는데 조기마감 등 회원사의 교육 참여도 및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 임 · 직원의 다양한 설비건설관련 기술 및 경영관리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원사 임 ·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회

2006년 제3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 시공품질점검위원회 위원들이 신흥설비(주)가 시공중인 대한주택공사 고양 일산(2)A-3블럭 옥외기계 설비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임종태)는 지난 9월 6일 신흥설비(주)(대표 김복제)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리발주 받은 현장인 경기도 고양 일산(2)A-3블럭 옥외기계 설비공사 현장에서 2006년 제3차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이 현장은 계약금액 9억3천1백56만원으로, 지난 2005년 11월 8일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11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9월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은근수 위원[태우기술(주) 대표], 정정호 위원[신영건설공영(주) 대표], 최기원 위원[삼건설비(주) 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공품질점검위원들은 이날 현장 점검 후 "기술적 문제와 시공 상세도, 시공품질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도서관리가 잘 되어있고, 공정 관리도 무난하며 지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시공 상태는 양호하므로, 잘 관리하여 공사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현장의 시공책임을 맡고 있는 신흥설비(주)의 김을용 소장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리발주 받은 공사이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시공으로 인하여 앞으로 분리발주가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며 이번 공사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충북도회

‘건설산업육성 전진대회’ 개최, 침체된 충북건설경기 타개 노력

▶ 장순경 충북도회 회장(맨 처음)을 비롯한 충북지역 건설인들이 “성실시공, 투명한 기업경영 원칙 확립, 원 · 하도급자 간 부당행위 금지”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충북지역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모든 충북지역 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충북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월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해 장순경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및 연합회 소속 단체장과 회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육성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건설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민들의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박연수 충북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업체들이 수주물량 부족에다 업체난립과 이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인들의 의지를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오늘 건설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

충북도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를 비롯한 충북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침체된 충북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건설산업육성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다"고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우택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건설산업 육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제한 발주나 공동도급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도내 건설인들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인들은 "최근 건설수주물량의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업계의 사기가 최저점에 도달했다"면서 "건설업계는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행동과 가치 실현을 통해 '잘사는 충북' 건설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설인들은 결의문 통해 △성실 · 완벽한 시공과 안전 도모 △투명한 기업경영 원칙 확립 △원 · 하도급자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강요 및 영향력 행사 금지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동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전진대회에 앞서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충북건설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건축사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충북지역 8개 건설관련 단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제5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충북도회(회장 장순경)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김성배)는 지난 9월 19일 (주)성진플랜트(대표 오성진)가 충청북도 청주교육청으로부터 분리발주 받은 청주시 상당구 운동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2006년 제5차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현장은 총 계약금액 4억2천1백만원 규모로 2006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9월 19일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시공품질 현장점검에 나선 김주승 위원[주성기연(주) 대표]과 이송우 위원[백만건설(주) 대표],

충북도회

▶ (주)성진플랜트가 시공 중인 운동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품질점검위원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

정두순 위원[(주)에스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은 현장의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공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공사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공품질점검위원들은 이날 현장을 점검한 후 "감독의 철저한 관리하에 정리정돈 및 시공품질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발주처 및 타공종(건축 · 전기 · 통신 · 소방)과의 유대관계 및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특히 발주처 소장의 현장운영방침 및 담당감독의 투철한 업무지도가 돋보이는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현장점검 후 위원별 평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해당 회원사는 물론 분리발주를 수주한 회원사에게도 송부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의 견실시공 독려 및 업역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북도회의 이러한 활동이 회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청주교육청으로부터 분리발주된 원현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운동중학교, 송절중학교 등을 수주한 회원사들이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대거 신청함에 따라 충북도회는 시공품질점검을 연이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교육청 임성만 감독관은 "교육청에서 발주된 송절고, 산남고, 목령고와 다목적 체육관 등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으로 협약을 맺어 공사가 진행중이고, 2008년 개교 예정인 청주 석남초 외 3개교, 특수학교 및 노후시설 개축공사 등의 사업이 BTL로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BTL로 실시될 경우 저가투찰에 의한 설비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돼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때 일수록 저가투찰을 지양하고 성실시공과 견실시공만이 설비건설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